

# 가계의 경제적 안정도 : 단기지표와 장기지표의 비교

## Economic Security of Household : The Comparison of Short-term and Long-term Indicators

水原大學校 專任講師

金 庚 子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University of Suwon*

*Instructor : Kyungja Kim*

### 목 차

- |                  |                |
|------------------|----------------|
| I. 서 론           | IV. 모델설정과 연구방법 |
| II. 경제적 안정도의 개념  | V. 결과와 해석      |
| III. 경제적 안정도의 척도 | VI. 결 론        |

### = ABSTRACT =

A dimension of well-being, economic security, was analyzed and compared with economic adequacy. Again, it was tested whether two indicators of economic security(short-term vs. long-term) yield same distribution across all household groups. Economic Security was defined as the household ability to sustain a given level of consumption in the case of economic emergency ; specifically, loss of income. Measures of 8 different kinds of economic security were constructed from household net worth including and excluding home equity. Data were taken from the 1988 U.S. Consumer Expenditure Survey, and 2148 households were selected to test hypotheses concerning the economic security of American households.

Empirical results showed a very low level of economic security in general. The first hypothesis that distribution of economic adequacy and economic security are same across all population groups was rejected. On the average, security measure rather than adequacy measure was favor to white, female-headed households and households who have old and highly educated householder. The second hypothesis that the indicators of long-term and short-term economic security yield the same results across all households was not rejected. In general, the level of economic security was relatively higher when long-term indicator was used than short-term indicator was, however, the direction and relative size of effect of income and each control variable was almost same.

## I. 서 론

안정적인 경제상황의 유지는 소득의 증대와 아울러 대다수 가계의 중요한 목표이다. Modigliani와 Brumberg(1954)의 평생소득가설이 이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그 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각 가계의 총효용은 평생동안 그 가계가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할 때 극대화된다. 가계는 소비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소득을 소비와 저축에 적절하게 배분한다. 그러나 가계의 경제적 안정도는 은퇴나 노화같은 예측되는 상황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구주의 사망, 질병, 실직, 또는 가정의 해체와 같은 예측되지 않은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도 위협받기 때문에, 각 가계는 소득의 증대만큼 안정도의 유지를 위해서도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은 절대적인 소득수준을 상승시켜 가계의 생활수준과 소비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근래의 여러 경제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는 경제적 안정에 그리 호의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안정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변화들을 들 수 있다. 그 첫째는 가계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물가상승이다. 일반 소비자 물가는 지난 20여년동안 계속 상승세가 가속화되어 왔는데 1973년에서 1980년 사이에는 물가상승율이 소득상승율을 앞질러서 미국가계의 실질소득은 7%가 감소하였다(Levy, 1988 : 4). 반면 사적인 안정보장의 수단인 저축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개인저축율은 1970년대에 평균 6.2%였다가 1980년과 1988년 사이에는 평균 4.3%로, 그리고 1985년과 1988년 사이에는 3.2%로 감소하였다(Blecker, 1990). 또한 가구소득에 대한 부채의 평균비율도 1950년대이래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Pollin, 1988).

몇가지 사회적 변화도 경제적 안정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령 피부양인구의 증가와 이혼율의 증가가 그 예이다. 미국 인구조사국(U.S. Bureau of the Census, 1986)은 평균수명의 연장

으로 2000년에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총인구의 23퍼센트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명의 증가는 은퇴후에 불충분한 소득과 양호하지 못한 건강상태하에서 생활을 해야할 피부양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는 그 사회의 노동자 1인당 부양부담을 증가시킨다. 이혼율의 증가 또한 가계의 안정도를 위협한다. 이혼은 가계의 취약성을 초래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인데 특히 이혼한 여자와 그 자녀들은 이혼전의 소비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빈곤층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이혼한 남자들에 비해 훨씬 많다. 이밖에도 각종 재해나 성인병의 증가로 인한 소득의 상실경험은 절대적인 소득수준이나 의료수준의 발전에 상관없이 증가하고 있다.

가계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는 그 요인의 증가만큼 충분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같지 않다. Titus, Fanslow, 그리고 Hira(1989)에 따르면 실질소득의 증가와 무관하게 1980년대에 미국가계의 파산율은 증가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수준과 비상사태에 대한 그들의 경제적 대비수준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Hira, Fanslow & Titus, 1989).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 일본에서는 1982년부터 10년 사이에 가계소득대비 소비자신용잔고가 2배이상 늘었고 파산건수도 2.4배정도 증가하였다(국민가계경제 연구소, 1992). 우리나라에서도 주택마련이나 교육자금 등을 제외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정도에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임정빈, 1986). 또한 김인숙과 최은숙(1992)이 농촌가계를 대상으로 노후대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후에도 현재의 소비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가계의 비율은 극히 낮았다.

가계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경제문제(economic distress)는 단기간에 극복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비교적 단기간에 경제적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가계집단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가계일 것이다. 그 한 집단은 평소에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일반보험의 형태로 또는 자산축적이라는 자가보험의 형태로

비상금을 축적해 놓은 가계이다. 두번째 집단은 감소된 소득수준에 맞추어 가계의 경제적 요구수준을 낮게 조절할 수 있는 가계이다. 어떤 방법으로 위기를 넘기는가는 가계의 자산축적 능력과 선호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두번째 방법을 택하는 가계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보다 더 낮게 요구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어렵고, 그리고 일단 설정된 생활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전에 그 수준으로의 향상시 얻었던 효용보다 훨씬 더 큰 효용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가계자산을 이용하여 경제적 안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경제적 안정도와 경제적 적정도를 비교하여 두 개념이 별개의 영역으로 취급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두번째 목적은 경제적 안정도의 척도를 장기지표와 단기지표로 나누어 그 두 지표에 따른 경제적 안정도의 분포를 비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가계가 장기적으로도 더 안정적인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빈곤인구의 추정이나 한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이해하고자 할 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경제적 안정도의 개념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도의 개념을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있느냐'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해 왔다. 그러나 그 개념이 선행연구에서 명백하게 통일되어 쓰인 것은 아니다. 가령 Groenland(1989)는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물질적 자원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는 그 이유를 물질적 자원이야말로 가계가 안정감 또는 독립감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의 의견대로라면 경제적 적정도와 안정성의 개념은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고보선과 임정빈(1992)도 재정적 안정이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고 가계소득의 적정도와 각 소비지출 비목

에서의 경제문제 경험빈도를 합하여 안정성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가계가 적정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가계가 반드시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갑작스럽게 소득을 상실할 수도 있고 소득만큼 부채도 많아 채무상환의 부담이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안정도의 지표로 사용된 경우도 있고(Marlowe & Godwin, 1988) 자산의 액수 자체가 안정도의 지표로 쓰인 경우도 있다(Sherraden, 1989). Johnson과 Widdows(1988)는 가계가 비축한 비상준비금의 수준을 측정하여 안정도를 추정하고 있다.

적정도와 다른 영역으로서의 안정도의 개념에 대한 비교적 정교한 설명은 Briggs(1967)와 Garfinkel(1990)의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Briggs는 가계복지의 세 요소를 경제적 적정도와 안정도 그리고 평등성이라 보고 있다. 여기서 적정도란 어느 한 시점에서 가계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계자원의 양이고, 안정도란 개인이나 가계가 예측되거나 예측되지 않는 재난에 얼마나 오래 대처할 수 있는가의 정도를 말한다. 한편 Garfinkel은 가계가 이미 설정된 생활수준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안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경제적 안정도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가계의 생활수준이 일단 저하되면 그 저하된 생활수준이 다른 가계의 생활수준보다 높더라도 그 가계의 안정도 또는 복지수준은 저하된 것이다. 가계의 경제적 곤경을 해결하기 위해 가계자원을 관리하거나 경제상태의 개선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가족원의 정신건강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Voydanoff와 Donnelly의 연구(1989)는 안정도의 개념이 상대적임을 시사하는 한 증거이다.

빈곤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가계경제를 파악하려면 한 시점에서의 빈곤의 정도뿐만 아니라 그 빈곤상태의 지속기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Burkhauser와 Duncan, 1988 ; Mincy와 Sawhill, & Wolff, 1990 ; Sherraden, 1989). Burkhauser와 Duncan(1988)에 의하면 많은 빈곤가구의 빈곤지

속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예를 들어 1969~1979년 사이에 25세에서 45세 사이의 여성가구주들 중 20퍼센트 정도가 한 번 이상씩 빈곤선 이하의 생활수준을 경험했는데 그 중 15퍼센트는 5년 이내에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한편 안정도의 개념을 연구한 대부분의 조사들이 안정도의 지표로 자산수준을 고려하고 있다. Sherraden(1989)은 빈곤가계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소득보다는 자산의 축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는 자산이 가계의 위험대처능력을 높이고 자손의 복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Burkhauser와 Duncan(1988), Johnson과 Widdows(1988), Radner(1990), 그리고 Weisbrod와 Hansen(1968)들도 가계의 유동자산 또는 유동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총자산으로 안정도의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경제적 안정도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가 이루어져 있지는 않으나 최소한 복지의 요소에 1) 경제적 적정도, 즉 한 시점에서의 경제적 요구수준에 대한 가용자원(주로 소득)의 비율과 2) 경제적 안정도, 즉, 일정한 소비수준 또는 생활수준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의 정도인, 항상성과 관련된 수준의 두 측면이 있다는 것에는 견해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그 안정도가 주로 자산(유동자산 또는 총자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에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가계의 경제적 목표중 복지의 항상성 측면에 해당되는 부분을 경제적 안정도라고 개념화하고 '한 가계가 경제적인 곤경에 대처하여 일정한 소비수준 또는 생활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기로 한다. 그리고 가계가 경제위기에 대처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도달할 수 있는 자원의 수준은 안정도의 단기지표 구성에, 비교적 장기적인 기간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수준은 안정도의 장기지표 구성에 적용하기로 한다.

### III. 경제적 안정도의 척도

가계의 경제적 복지의 두 영역 : 적정도의 영역

과 안정도의 영역은 가계의 물질적 자원을 소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효용론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적정도는 소비표준과 실제 소비수준의 차이의 함수이다. 마찬가지로 맥락으로 경제적 안정도 또한 가계의 소비표준(요구수준)에 대한 소비수준(실제 자원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이 때 가계자원의 양은 결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계자산이다. 가계의 경제적 안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자산의 중요한 역할은 평생소득가설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전생애에 걸쳐 평생소득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가계의 효용을 크게 하므로 각 가계는 소득이 소비를 초과하는 경우(주로 중년기) 소득을 자산의 형태로 저장하였다가 소비가 소득을 초과하게 되는 시기(주로 노년기)에 현금화하여 사용한다. 즉 자산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다.

자원의 양이 일정하다면 소비수준을 낮춘 가계는 소비수준을 높인 가계보다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 가계가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용자원의 양을 높이든가 소비수준을 낮추든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 안정을 유지하는가는 각 가계의 선호에 따라 다른데 이는 가구주의 연령이나 인종, 성별, 교육수준 등 가계의 구조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사회보험이나 공적부조, 사회부조 서비스 등의 사회보장제도나 정부의 여러 다른 정책, 그리고 시장의 구조 등 여러 사회적 특성들이 가계의 안정도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가계의 경제적 안정도는 가계의 자산수준과 가계의 소비수준 또는 표준 그리고 사회체계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1과 같다.

경제적 안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그림1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우선 경제적 안정도의 지표화를 위해 경제적 안정도를 '근로 소득이 중지 되었을 때 한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만으로 일정한 소비수준 또는 소비표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소비수준은 해당기간동안 한 가계가 부채를 전혀 갚지 않으면서 또는 긴급한 부채(총부채의 2퍼센트로 추정)를 갚아 나가면서 유지해야 할 수준으로

사회적으로 결정된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수준이다. 가계가 긴급히 갚아야 할 부채의 양을 총부채의 2퍼센트로 정한 것은 미국가계가 지고 있는 소비자 신용부채(consumer credit)와 자동차 할부금 부채중 매달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비율이 부채액의 평균 2퍼센트 정도이기 때문이다. 최소 소비수준은 가계원수별 빈곤선으로 측정한다. 가계원수별 빈곤선은 표3에 제시하였는데 안정도의 단위를 개월로 하였으므로 표3에 주어진 빈곤선은 척도구성시에 12로 나누어져서 계산되었다.

소비표준은 해당가계가 유사시에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소비수준인데 현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 또는 월평균 소비지출액에 총부채의 2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측정하기로 한다. 대개의 경우 가계의 소비표준은 현재의 소비수준보다 높지만 현재의 소비수준이 유지되는 한 그 절대적인 수준의 고하에 관계없이 일정수준의 효용이 충족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소비수준은 최저의 소비표준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안정도는 유사시에 한 가계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소비수준(빈곤선)을 또는 가계가 최소한 유지하고자 하는 소비표준(현재의 소비수준)을 얼마나 오래(단위 : 개월) 유지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빈곤선의 개념을 적용한 첫번째 경제적 안정도는(가계의 요구수준을 감소된 자원수준에 적용하여 최저수준으로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조정된 경제적 안정도(poverty-level adjusted economic security : PES)로, 현재의 소비수준을 적용한 두번째 경제적 안정도는 가계의 요구수준을 낮추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조정되지 않은 경제적 안정도(nonadjusted economic security : NES)로 부르려고 한다.

자산은 모든 형태의 유동자산의 현시가과, 유동자산에 주택의 순수시가(주택의 시가에서 주택용자금액을 뺀 것 : home equity)를 합한 총자산 두 가지로 측정한다. 유동자산은 비교적 단기일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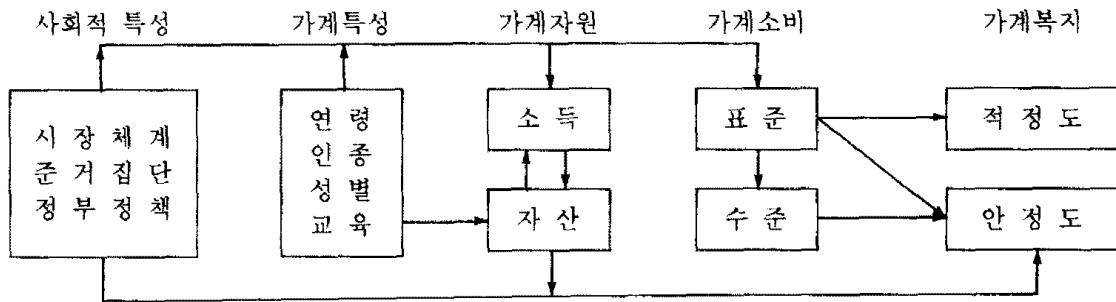


그림 1. 가계의 경제적 안정도를 결정하는 요인들.

표 1. 경제적 안정도 척도의 구성

조정된 경제적 안정도		조정되지 않은 경제적 안정도	
$PES1 = \frac{\text{총자산의 시가}}{\text{빈곤선}}$		$NES1 = \frac{\text{총자산의 시가}}{\text{월평균 소비지출액}}$	
$PES2 = \frac{\text{총자산의 시가}}{(\text{빈곤선} + .02 * \text{총부채})}$		$NES2 = \frac{\text{총자산의 시가}}{(\text{월평균 소비지출액} + .02 * \text{총부채})}$	
$PES3 = \frac{\text{유동자산의 시가}}{\text{빈곤선}}$		$NES3 = \frac{\text{유동자산의 시가}}{\text{월평균 소비지출액}}$	
$PES4 = \frac{\text{유동자산의 시가}}{(\text{빈곤선} + .02 * \text{총부채})}$		$NES4 = \frac{\text{유동자산의 시가}}{(\text{월평균 소비지출액} + .02 * \text{총부채})}$	

현금화될 수 있는데 비해 주택등 부동산은 현금화되기 위해 비교적 오랜 시간이 필요하여 경제위기를 해결하는데 바로 동원될 수 없으므로, 자산에 유동자산만을 포함한 경우는 안정도의 단기 지표로(PES3, PES4, NES3, NES4)로, 자산에 유동자산과 부동산 모두를 포함한 경우는 안정도의 장기지표로(PES1, PES2, NES1, NES2) 부르고자 한다. 따라서 표 1에서와 같은 8가지의 최종척도를 구성할 수 있다.

각 척도는 경제적 안정도 측정의 목적과 기준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가령 한 사회의 극빈층을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안정도 척도의 분포로 현재 소비지출액보다는 빈곤선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가계복지의 종단적인 변화나 평균적인 생활의 질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분포가 현재의 소비지출액수여야 할 것이다. 반면 단기기간에는 주택이 유동자산만큼 쉽게 가계의 요구충족을 위해 현금화될 수 없으므로 단기지표로 경제적 안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기기간에는 주택의 매매 또는 주택을 담보로 한 융자 등으로 주택이 긴급한 가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쓰일 수 있으므로 장기지표로 안정도를 측정해야 할 것이다.

#### IV. 모델설정과 연구방법

##### 1. 연구모델과 가설

그림 1에 따르면 경제적 안정도는 소비표준과 소비수준, 자산, 그리고 사회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다시 자산은 소득과 가계특성의 함수이고 소비표준과 소비수준은 사회적 특성과 가계특성의 함수이므로 경제적 안정도(ES)는 최종적으로 소득(Y), 가계특성 벡터(X) 및 사회적 특성(SS)의 함수가 된다.

$$ES=f(Y, X, SS)$$

소득과 자산의 분포를 결정하는 가계특성 요인으로는 경제적 요구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4개의 변수; 가구주의 연령, 인종, 성별과 교육수준을 선택하였다. 경제적 안정도의 의미를

私人的인 경제적 대비에 국한시키기 위하여 공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대상이 되는 62세 이상의 연령층은 표본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사회적 특성에 따른 영향은 모든 가구에게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분석에 사용한 최종모델은 다음과 같다.

$$ES=b_0+b_1 * 소득+b_2 * 연령+b_3 * 성별+b_4 * 인종+b_5X * 교육+e$$

이 연구의 첫번째 목적은 소득과 경제적 안정도의 분포가 동일한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만일 이 두 개념이 동일한 영역이라면 소득이외에 다른 통제변수들의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첫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H_1 : b_2=b_3=b_4=b_5=0.$$

본 연구의 두번째 목적은 경제적 안정도의 장기지표와 단기지표가 같은 분포를 보이는가의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다. 단기지표로 측정된 안정도를 ES', 장기지표로 측정된 안정도를 ES''라 하면 ES'와 ES''의 분포가 동일할 경우 소득을 비롯한 다른 가계특성 변수들의 계수는 서로 그 방향과 영향력의 순서가 동일해야 할 것이므로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검증하기 위한 가설은 아래와 같아진다.

$$H_2 : b'=b''.$$

b'과 b''은 각각 단기지표와 장기지표에서의 회귀 계수들의 6×1 벡터이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1988년 미국의 노동통계국(BLS)에서 발표한 도시가계의 소비지출에 관한 조사보고서(Consumer Expenditure Survey Report)이다. 가용한 총표본중 62세 이상의 가구주를 가진 가계를 제외하고 2148가계가 이 논문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본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경제적 안정도의 척도구성에 사용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가계특성 변수들의 측정방법은 표 3에

표 2. 표본의 특성

	% (N)	평균	표준편차
가구주의 연령(歲)		37.2	10.6
35세 미만	47 (1000)		
35~44세	29 (624)		
45세 이상	24 (524)		
가구주의 성별			
남자	68 (1469)		
여자	32 (679)		
가구주의 인종			
백인	85 (1828)		
비백인	15 (320)		
가구주의 교육수준(年)		13.2	2.6
고졸 미만	16 (337)		
고졸	32 (681)		
초급대학 이상	52 (1130)		
연평균가계소득(\$)		30,533	23,148
15,000 미만	28 (593)		
15,000~24,999	18 (382)		
25,000~39,999	24 (527)		
40,000 이상	30 (646)		

표 3. 변수의 정의와 코딩

총자산	유동자산+주택의 순시가	
유동자산	은행예금+주식+채권+기타 각종 유가증권	
주택의 순시가	주택의 시가-주택융자(mortgage) 미납액	
총부채	소비자 신용부채+자동차 할부 미납액	
월소비지출액	총월소비지출액-(연금+사회보장 분담금)	
총가계소득	세금납부후의 연간 총가계근로소득	
	1인가구	\$ 6,024
	(가구주 65세 미만)	6,155
	2인가구	7,704
	(가구주 65세 미만)	7,958
	3인가구	9,345
	4인가구	12,092
	5인가구	14,305
	6인가구	16,149
	7인가구	18,248
	8인가구	20,279
	9인가구	24,133
연령	가구주의 연령(세)	
인종	가구주의 인종(백인=1, 비백인=0)	
성별	가구주의 성별(남자=1, 여자=0)	
교육수준	가구주의 학교교육년수(年)	

표 4. 미국가계의 경제적 안정도수준(평균과 최빈값) (단위: 개월)

	PES1	PES2	PES3	PES4	NES1	NES2	NES3	NES4
평균	40.3	31.8	7.1	5.1	22.4	20.5	3.7	3.4
최빈값	14.3	12.9	1.9	1.4	6.7	5.2	.7	.6

제시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서는 OLS 방법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들을 검증한 결과 등분산성(homoskedasticity)의 가정만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회귀계수의 검증에 t값 대신에 White's t값을 사용하였다<sup>1)</sup>.

### V. 결과와 해석

#### 1. 경제적 안정도의 수준

미국가계의 경제적 안정도수준의 분포는 정적인 방향으로 매우 편포되어 있어 평균값이 최빈값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표 4).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최빈값으로 경제적 안정도의 일반적 수준을 설명하고자 한다.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주택을 포함한 총자산으로 빈곤선 수준의 소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부채상환없이는 14.3개월, 일정량의 부채를 갚아 나가면서는 12.9개월이 가장 많았다. 단기기간에는 대개의 주택이 현금화되기 어려우므로 유동자산만으로 경제위기를 넘겨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부채상환없이는 1.9개월(PES3), 부채일부를 상환하면서는 1.4개월을 유지할 수 있는 가계가 가장 많았다(PES4).

반면 소득이 중단되는 등 불의의 상황에서도 최소한 현재의 소비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총자산을 모두 고려할 때 부채상환 없이는 6.7개월(NES1), 부채일부를 상환하면서는 5.2개월(NES2)이 가장 많았다. 유동자산만을 고려할 때는 부채상환없이 현재소비수준을 .7개월 유지할 수 있는 가계가 가장 많았고(NES3), 단기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지표로 보이는 NES4를 가지고 보면, 즉 긴급한 부채를 갚아 나가면서 유동자산만으로 현재의 소비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평균

.6개월(약 18 일)을 유지할 수 있는 가계가 가장 많았다. 실업후에 실업연금을 타기까지 평균 12주가 걸리고 그 액수도 이전 소득의 40%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상당수의 미국가계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경제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 2. 소득과 경제적 안정도

표 5는 소득과 경제적 안정도가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소득과 경제적 안정도는 어떤 지표가 사용되더라도 언제나 유의미한 正의 상관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안정도 지표의 분포에 현재 소비수준보다는 빈곤선이 사용된 경우, 그리고 부채상환이 고려된 경우보다는 고려되지 않은 경우 소득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대체로 소득과 함께 소비수준이 높아지고 부채의 양도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소득과 부채액의 정적인 상관관은 Cartwright와 Friedland(1985)가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이외에도 다른 통제변수들이 경제적 안정도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 어떤 지표를 사용하더라도 소득은 경제적 안정도 분산의 10% 이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안정도와 정적인 상관관을 보이는 연령과 교육수준중 연령은 모델에 의해 설명되는 경제적 안정도 분산의 거의 50%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소득이 일정할 때, 인종의 경우에는 백인가계의 안정도 수준이 더 높았고 성별의 경우에는 여성가구주 가계의 안정도 수준이 남성가구주 가계보다 높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소득을 고려할 때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여러 보충자료의 결과로 보아 여성가구주 가계가 남성가구주 가계보다 같은 소득에서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기 때문이라

주1) 자세한 내용은 White(1984 : 67-72) 참고.



기보다는 여성가구주 가계에서 평균 가계원수가 작아 경제적 요구수준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Wald test로 소득외에 다른 통제변수의 설명력이 유의미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어떤 지표가 사용되었는가에 관계없이 가설1은 기각되었다. 다시 말하면 소득이 일정한 경우에도 소득이외의 요인에 따라 경제적 안정도가 달라진다. 이는 소득과 경제적 안정도는 같은 분포를 도출해 내는 동일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특히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와 경제적 안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성별의 차이는 소득과 경제적 안정도의 차원이 다르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

소득과 경제적 안정도의 두 개념이 빈곤인구의 추정에 각각 어떻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PES4로 측정된 경제적 안정도 분포에서 0 이하의 안정도를 가진 집단(즉, 유동자산만으로는 근로소득의 중단시 부도를 내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부채를 갚아 나가면서 빈곤선 수준의 소비를 하루도 유지할 수 없는 가계집단)과 총가계소득이 1988년도 기준 빈곤선 이하인 집단의 가계특성을 비교하였다(표 6).

전체가구중 18퍼센트가 저소득층의 범주에, 15

표 5.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PES1	PES2	PES3	PES4	NES1	NES2	NES3	NES4
소득 (\$ 1000)	.87** (.32)	.79** (.20)	.23** (.18)	.15** (.10)	.36** (.12)	.23* (.11)	.03* (.05)	.2* (.05)
연령	1.34** (.32)	1.22** (.28)	.43** (.21)	.39** (.14)	.51** (.16)	.46** (.15)	.16** (.13)	.15** (.13)
성별 (男=1)	-.01 (-.03)	.00 (-.02)	-2.39* (-.04)	-1.88* (-.04)	-.01 (-.04)	-.01 (-.03)	-7.6 (-.04)	.70 (-.03)
인종 (白=1)	8.58** (.09)	7.66** (.08)	3.51** (.05)	3.09* (.07)	4.86** (.08)	4.56** (.09)	1.34* (.06)	1.30* (.06)
교육	1.56** (.15)	1.38** (.12)	1.14** (.12)	1.00** (.12)	.54** (.15)	.50* (.14)	.40** (.10)	.40** (.11)
상수	-32.42	-27.47	-29.11	-25.33	-12.54	-10.90	-9.19	-8.75
adj.R <sup>2</sup>	.25	.23	.13	.11	.20	.18	.07	.06
Wald값	85.34	78.56	60.06	60.63	72.09	68.36	50.09	51.38

\* : significant at  $p < 0.05$ , \*\* : significant at  $p < 0.01$   
( )안의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표 6. 저소득 가구와 낮은 경제적 안정도를 가진 가구의 특성 비교

	저소득 가구(%)	低안정도 가구(%)	저소득&저안정도 가구(%)
전체가구	18	15	8
연령 : 35세 미만	17	18	9
35~44세	14	14	6
45세 이상	22	12	7
성별 : 남자	11	12	4
여자	35	23	17
인종 : 백인	16	12	5
비백인	32	37	22
교육 : 고졸미만	37	44	25
고졸	17	17	8
초대졸이상	14	6	3

퍼센트가 저안정도층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소득과 안정도 지표 어느 것을 사용해도 빈곤층에 속하게 되는 집단은 총표본의 8%였다. 저소득층의 비율 18퍼센트는 1988년도 미국가계의 공식빈곤율 10.4퍼센트보다 높는데 이는 이 논문에서 단지 근로소득만이 가계소득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적 안정도의 척도는 장노년층, 여성가구주, 그리고 고학력의 가구주를 가진 가계에 소득척도보다 더 우호적인 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45세 이상의 가구주 가계는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세 집단중 가장 빈곤한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나 경제적 안정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 가장 양호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보다 자산의 증가가 더 빠르다는 Modigliani의 평생소득가설의 주장과 일치한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람들은 소득을 증대시키려 하기보다는 기존 소득수준 또는 소비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가계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가구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소득보다 경제적 안정도를 고려할 때 11 대 35에서 12 대 23으로 작아지는 반면, 가구주의 인종이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소득보다 경제적 안정도를 고려할 때 더 커지고 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흑인가계는 백인가계에 비해 빈곤층에 속할 확률이 2배 더 많았으나(16 대 32) 안정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 그 확률이 3배 이상 많아진다 (12 대 37). 고졸 미만 가구주 가계는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초대졸 이상 가구주 가계보다 빈곤선 이하인 경우가 3배 정도 많았으나(37 대 14) 안정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 그 빈도가 7배 이상 많아지고 있다(44 대 6).

위에서의 소득척도는 빈곤선을 적용하여 가계 원수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요구수준으로 조정했다는 점에서 경제적 적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소득과 경제적 안정도는 다같이 가계의 요구수준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된 지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척도는 서로 다른 빈곤층을 포함하고 있다. 적정도 지표는 비백인인 저학력의 가구주를 가진 가계집단에, 안정도 지표는 높은 연령층, 여자, 백인 그리고 고학력의 가구주를 가진 가계집단에 각각 상대적으로 더 우호적으로 나타

난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적정도가 높으면 안정도도 높을 것이라는 설명이 모든 집단에서 통용될 수는 없다.

### 3. 경제적 안정도 : 단기지표와 장기지표의 비교

안정도의 단기지표와 장기지표의 수준을 비교해본 결과 소득과 네 개의 통제변수로 설명되는 안정도의 분산의 비율(R<sup>2</sup>)은 안정도가 장기지표로 측정되었을 때 더 크다(예. PES1 대 PES3 = .25 대 .13). 이는 부분적으로 총자산으로 구성된 장기지표의 분산자체가 유동자산만으로 구성된 단기지표의 분산보다 컸기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은행예금 등의 유동자산은 그 절대액은 작지만 총표본의 84퍼센트가 소유하고 있는데 비해, 주택순시가 계산에 포함된 주택의 보유율은 66퍼센트에 불과하여 총자산의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안정도에 대한 각 변수의 설명력도 전반적으로 단기지표에서보다 장기지표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조정된 안정도의 경우 소득이 1단위 증가할수록 장기지표로 측정된 각 가계의 안정도는 평균 .79개월에서 .87개월만큼 증가했으나(PES1, PES2) 단기지표로 측정된 안정도는 .15개월에서 .23개월만큼 증가하였다(PES3, PES4). 조정되지 않은 안정도의 경우에는 소득이 1단위 증가할수록 장기지표로 측정된 각 가계의 안정도는 평균 .23개월에서 .36개월만큼 증가했으나(NES1, NES2) 단기지표로 측정된 안정도는 .02개월에서 03개월만큼 증가하였다. 소득외의 다른 변수에 따른 차이도 장기지표의 경우 단기지표보다 약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

장기지표와 단기지표로 안정도를 각각 측정했을 때 각 변수들의 영향력의 순서를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가지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표에서 순서가 거의 같았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에든지 연령의 효과가 가장 컸으나 다음순서는 PES1-PES4의 지표를 보면 소득, 교육, 인종, 성별 순으로, NES1-NES4의 지표를 보면 교육, 소득, 인종, 성별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안정도의 차이는 자산이 총자산이나, 유동자산이나보다는(즉, 단기 지표나 장기 지표나 보다는) 경제적 요구수준의 변수로 빈곤선이 적용되었느냐 아니면 현재의 소비지출액이 적용되었느냐에 따라(즉, 요구가 조정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소득과 각 통제변수들이 안정도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영향력의 순서는 단기 지표가 사용되든 장기 지표가 사용되든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장기 지표가 단기 지표보다 더 민감하게 변화하기는 하지만 각 계수의 방향과 순서가 같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가계가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확률이 높음을 뜻한다. 이는 나아가 소득과 연령, 교육수준 등에 따른 차이가 장기적으로 점점 더 넓어질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VI. 결 론

가계의 경제적 요구도로 조정된 가계자산의 수준으로 경제적 안정도를 측정된 결과에 근거하여, 미국가계는 그 소득수준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그리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현금화가 어려운 부동산을 제외하고 유동자산만을 가계자원으로 고려했을 때 더욱 그러하다. 또한 소득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경제적 안정도도 높아지기는 하지만 소득외에 다른 요인들이 경제적 안정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두 개념이 동일한 차원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안정도의 단기 지표와 장기 지표를 비교한 결과는 약간의 예외는 있으나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가계가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확률이 아주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가계의 경제적 안정도의 영역은 소득(또는 경제적 적정도)의 영역과 아울러 경제적 복지의 한 별개영역으로서 중요시되어야 하고 가계복지의 측정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안정도를 측정할 때는 단기적인 지표와 장기적인 지표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빈곤가계를 파악하거나 한 사회내의 경제

적 불평등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참 고 문 헌

- 1) 고보선·임정빈(1992). 가정경제안정도 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91-208.
- 2) 국민가계경제연구소(1992). 소비자신용교육에 나선 일본카드사들. *국민경제리뷰*(23), 34-36.
- 3) 김인숙·최은숙(1992). 농가의 노후 경제적 요구와 대비수준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 연구* 3(1), 31-45.
- 4) 임정빈(1986). 가정의 금전관리에 관한 실증적 조사연구. 박금순 편저, *가정의 금전관리* 9-78.
- 5) Blecker, R.A.(1990). Are Americans on a consumption binge? Economic Policy Institute.
- 6) Briggs, A.(1967). The Welfare state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C.I. Schottland(Ed.), *The Welfare State*(pp.25-38).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 7) Burkhauser, R.V., Butler, J.S. & Wilkinson, J.T. (1985). Estimating changes in well-being across life. In M. David & T. Smeeding(Eds.), *Horizontal Equity, Uncertainty, and Economic Well-being*(pp. 55-88). Chicago : The Univ. of Chicago Press.
- 8) Burkhauser, R.V. & Duncan, G.J.(1988). Life events, public policy, and the economic vulnerability of children and the elderly. In J.L. Palmer and I.V. Sawhill (Eds.), *The Vulnerable*(pp.69-87). Washington, D.C. : Urban Institute Press.
- 9) Cartwright, W.S. & Friedland, R.B.(1985). The President commission on the pension policy household survey 1979 : Net wealth distributions by type and age for the United Stat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1(3), 285-308.
- 10) Garfinkel, I.(1990). Reducing insecurity : The principle objective of income transfer? *Science* 24, 17-18.
- 11) Groenland, E.(1990). Structural elements of material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22(4), 367-384.
- 12) Hira, T.K., Fanslow, A.M. & Titus, P.M.(1989). Changes in financial status influencing level of

- satisfaction in households. *Lifestyles :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2), 107-122.
- 13) Johnson, D.P. & Widdows, R.(1988). Emergency fund level of households. In Hampton, V.(Ed.), *ACCI 34th Proceedigs*(pp.235-241).
  - 14) Levy, F.(1988). *Dollars and Dreams*. N.Y. : W.W. Norton and Company.
  - 15) Marlowe, J.& Godwin, G.(1988). The relationship of income and human capital to debt/asset ratio of farm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1), 95-109.
  - 16) Mincy, R.B., Sawhill, I.V. & Wolff, D.A.(1990). The Underclass : Definition and the measurement. *Science* (248), 450-453.
  - 17) Modigliani, F. & Brumberg, R.(1954). Utility analysis and the consumption function : Interpretation of cross-section data. In K.K. Kurihara (Ed.), *Post Keynesian Economics*(pp. 388-436). New Brunswick, N.J. : Rutgers University Press.
  - 18) Pollin, R.(1988). The Growth of U.S. household debt : Demand side influences. *Journal of Macroeconomics* 10(2), 231-247.
  - 19) Radner, D.B.(1990). Assessing the economic status of the aged and nonaged using alternative income-wealth measure. *Social Security Bulletin* 53(3), 2-14.
  - 20) Sherraden, M.(1989).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The Entrepreneurial Economic review* 8(3), 1-24.
  - 21) Titus, P.M., Fanslow, A.M. & Hira, T.K.(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s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309-318.
  - 22) Weisbrod, B.A. & Hansen, W.L.(1968). An income net-worth approach to measuring economic welfare. *American Economic review* 58(5), 1314-1329.
  - 23) White, H.(1984). *Asymptotic Theory for Econometricians*. San Diego : Academic Press, Inc.